

있어야 할 것이 없는 화개장터



김 승 호 의
시 선

“현지인도 안가는 장터엔 뭐하러 갔느냐.” 지난 광복절 연휴를 맞아 무엇인가에 끌려 화개장터에 갔다. 가수 조영남씨가 불렀던 그 화개장터가 궁금해 지리산 자락에 사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는 길에 잠시 발길을 돌렸다. 촌로들이 갖고 나온 산나물, 채소, 과일 좌판이며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고 장돌뱅이의 신명나는 모습이 연출되는 활기찬 시골 장터의 풍경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상상은 화개장터 입구에 들어 서자마자 깨졌다. 산나물, 약초 등 지역 특산물에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진열된 모습이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포장지속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바탕의 글씨까지 모두 한 사람이 써서 붙인 듯 보였다. ‘통일’과 ‘획일’은 다르다.

어느 가게를 봐도 똑같았다. 장터에 특색은 없었다. 화개장터라는 상징에 끌려 관광객으로 처음갔던 그곳에 기자가 머문 시간은 고작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볼 것도, 살 것도, 먹을 것도 없었다.

화개장터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시장에서 파는 특산품들을 모두 한 곳에서 공급한다는 말도 들리더라. 어쨌든 현지인들은 화개장터엔 안 간다. 관광객이나 오는 그런 곳이 됐다”고 말했다.

화개장터를 관장하는 하동군청에 전화를 걸어 물었다. 담당 공무원도 가게마다 똑같은 제품 포장지에 대해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아쉬워했다.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서울올림픽이 열린던 1988년 당시 나왔던 가요 화개장터의 후렴구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 난 지금의 화개장터는 아쉽게도 장터의 정취가 완전히 사라졌다.

‘야랫마을 하동 사람 윗마을 구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상징이 됐던 영호남의 ‘화합’도 사라진지 오래다. 실제로 현재 화개장터에서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공장옥(가게) 74개소 가운데 호남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단 3곳이다. 한뼨 2곳이던 시절도 있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탐리. 화개장터는 분명 경상도 땅에 있다. 그래도 옛 화개장터엔 누구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하동 뿐만

아니라 구례, 광양, 순천, 남해 등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함께 물려들었다.

오일장이던 화개장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설시장으로 변모했다.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장날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불난리, 물난리를 겪고 복구하는 과정에선 압점 상인 선정을 놓고 잡음도 적지 않았다. 호남 상인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들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가 과열음을 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경상남도가 2022년에 펴낸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화개장터에 대해 시장 기능을 상실했고, 일시적 관광 경유지로 쇠퇴하고 있어 공간적·문화적·기능적 대안을 발굴하고 상권과 관광기능 재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시절이 변해 화개장터에서 호남, 영남의 화합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치자. 그런데 과연 화개장터의 ‘장터’는 지킬 수 없었을까.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에 진정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느낀 건 그 풍경을 바라본 속 좁은 나그네 기자 한명뿐이길 바란다.

/bada@metroseoul.co.kr

200년 빈의 도자기와 삼성 광주의 변신



김 지 수 첩

구 남 영
(산업부)

얼마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도자기 브랜드 헤렌드 매장에 들른 적이 있다. 1826년 시작한 헤렌드는 올해 200주년을 맞았다. 매장 직원은 요즘 접시뿐 아니라 손바닥만 한 장식품을 찾는 고객도 많아졌다고 했다. 식문화가 달라지면서 제품도 변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변화를 보며 다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광주에 2400억원을 들여 새 생산라인을 짓는다. 1989년 광주사업장이 문을 연 이후 37년 만의 대규모 투자다. 2028년 가동할 새 라인에서 만들 제품은 냉장고도 에어컨도 아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냉각수 분배장치(CDU)다.

광주는 오랫동안 삼성 가전의 주요 생산기

지였다. 생활가전 중심이던 생산 영역이 데이터센터 냉각 장비로 넓어지는 것이다.

만드는 제품은 달라져도 기반이 되는 기술은 맞닿아 있다. 가전과 데이터센터 공조 모두 열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탑재한 AI 서버는 발열이 커 공기만으로 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냉각수를 이용해 열을 빼내는 액체냉각의 중요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가전에서 쌓은 공조 역량에 지난해 인수한 플렉트그룹의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이 처한 상황과도 맞물린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2분기 출범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부품 원가 상승이 수익성을 끌어내린 반면 AI 수요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사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한 회사 안에서 AI 호황의 명암이 엇갈린 셈이다.

반면 공조에서는 AI 확산이 새로운 수요

를 만든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날수록 냉각 장비 수요도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선점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LG전자는 지난달 600kW급 CDU로 국내 기업 최초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받으며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의 광주 라인이 가동되는 시점은 2028년이다. 빠르게 커지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2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이번 투자를 눈여겨볼 이유가 있다. 삼성 광주는 37년간 쌓아온 제조 역량을 버리는 대신 새로운 수요에 맞춰 생산 영역을 넓히는 길을 택했다.

200년을 이어온 헤렌드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만드는 대상을 달리해왔다. 삼성 광주사업장도 생활가전을 만들어온 경험 위에 AI 냉각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더한다. 오래된 제조업의 경쟁력은 과거에 무엇을 만들었느냐보다, 쌓아온 기술로 다음에 무엇을 만들 수 있는냐에 달렸는지도 모른다.

/koogija_lee@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0일 (음 7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구설수와 언행을 주의하세요. 60년생 움지 않은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2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도움을 얻습니다. 84년생 이성관계에 신중하세요.



4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으니 욕심은 금물. 61년생 스스로부터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73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50년생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2년생 눈앞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74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잡하지 않습니다. 86년생 일이 많고 바쁜 하루입니다.



51년생 현재 추진하는 일에 결과가 있습니다. 63년생 부부, 이성운이 갈하니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75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87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하루입니다.



52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미루는 게 좋습니다. 64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해결됩니다. 88년생 주의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53년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77년생 일이 뜻대로 안 풀리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89년생 무난하고 평탄한 하루입니다.



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모두 좋습니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78년생 부부나 이성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희소식이 있겠습니다. 90년생 일에 대한 마무리와 말조심が必要です.



55년생 지금은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67년생 성실해 추진해 온 일에 보람이 있습니다. 79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어려움을 빠져나오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의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리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되겠습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다투기 보다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7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3년생 운이 좋으니 원한된 일을 추진하세요. 95년생 동료와 협력도 잘되고 일도 잘 풀립니다.



김상회의四季

우연과 필연

개인의 비극 또는 행운을 보다 보면 그 일어난 일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의아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 또한 사소하거나 우연스러운 사건이 발미가 되어 국가 간 전쟁이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1차 세계대전 역시 유럽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갈등이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작은 도화선을 계기로 건잡을 수 없이 확산하여 벌어진 전쟁이지 않던가? 어느 한 명의 민족주의자의 총격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황태자가 사라 예보 방문 중 암살을 당하여 원래는 국지적인 작은 충돌에 그칠 수도 있었으나 결국은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며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전쟁 이후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태동하여 궁극적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공산화된 러시아를 필두로 전 세계는 냉전 구도로 이어지게 된다.

이 영향은 우리 한반도에도 직결된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는 탓에 일본으로부터 광복하는 계기도 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아무도 관심 없는 나라였기에 신탁통치로 넘어 가게 된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영국 외무성 극동국의 한 관리의 “한국은 영국 왕실 근위병의 유골 한 토막만 한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보고했을 정도였다. 당시에 한국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은 자치의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해방해 줄 수는 있지만, 독립시켜 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은 뒤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채택되어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 독립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라는 기사를 한 신문에서 보았다. 이러한 일이 어디 우리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어떤 조건의 작은 차이가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화를 낳는다는 ‘나비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음을 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7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